

IPA 분석을 통한 창업생태계 개선방안 도출

김수진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박사과정)*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기산업연구실장)**

남정민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주임교수)***

국 문 요 약

최근 창업생태계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창업생태계는 창업가, 정부, 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요소는 상호작용하면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창업자를 대상으로 중요도 및 성취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의 중요도와 현재 수준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자들의 중요도 순위는 ①창업지원 프로그램(4.43) ②창업자금조달(4.39) ③시장진입용이성(4.30)순으로 나타났다. 성취도 순위는 ①창업지원프로그램(3.81) ②회사설립의 용이성(3.76) ③창업지원기관지원(3.66), 창업자금 조달(3.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창업생태계의 모든 요소는 중요도가 성취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창업생태계 구성요소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창업자들에게 성취도 측면에서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에서 가장 개선순위가 높은 요인은 「창업 실패 시 안전망」, 「실패수용문화」, 「시장진입 용이성」, 「창업 후 생존 용이성」, 「출구용이성」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생태계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창업 실패 문화 인식개선, 성공창업자 매칭, 성장단계별 스케일업 지원 강화, 신사업분야 규제 완화, 투자회수 전략 다양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창업생태계, 창업생태계 구성요소, 중요도-성취도 분석

1. 서론

코로나19로 산업 및 경제 구조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이에 대한 경제 활로를 개척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대한상공회의소, 2021). 기존 산업의 성장한계, 경제성장률 저하 등의 위기 요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창업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고 있다(이창구·서영욱, 2018). 전 세계 주요국은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창업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미국은 2009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견인’과 2011년 ‘경제성장과 번영 확보’를 목표로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수립하고 2014년 ScaleUp America Initiative를 발표하였다. 미국의 창업지원 전략성과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1,550여만개, 2015년 4분기에만 889,000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15년 액셀러레이터 170여개,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는 200%로 성장하였다(조만석·김선우, 2017).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창업으로 보았다. 이명박 정부는 창업 인프라 조성,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창업 활성화와 저변 확대, 문재인 정부는 창업 국가 건설을 목표로 창업 정책의 다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년~2023년)’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 혁신 창업 국가’를 비전으로 삼고 총 6가지 전략을 발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창업환경 변화를 위하여 창업지원법 전면 개정, 현장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창업·성장을 위한 창업생태계(entrepreneurial system) 기반 강화를 강조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21a).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창업 정책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여 혁신 기반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창업생태계(entrepreneurial system)’는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소연 외, 2020). Mack & Mayer(2016)는 창업생태계는 상호작용하는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요소는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내고, 이와 관련된 지역 기반의 기업이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Audretsch & Belitski(2017)는 제도적·조직적·시스템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창업생태계라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이

* 주저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박사과정, tnwls142@dankook.ac.kr

** 공동저자, IBK경제연구소, 중기산업연구실장, skrboom@ibk.co.kr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주임교수, namjm@dankook.ac.kr

· 투고일: 2022-07-10 · 1차 수정일: 2022-08-10 · 2차 수정일: 2022-08-19 · 게재확정일: 2022-08-26

적 기회를 인식하게 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김선민(2019)은 창업가의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사회적·물리적 요인에 의하여 창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생태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다고 하였다.

Isenberg(2014)는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것은 전 세계 도시 및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핵심 요소이고 이에 대한 경제발전 전략은 ‘창업생태계’라 설명하였다. 또한 Spilling(1996)은 경제발전은 많은 벤처기업과 창업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인프라, 공공기관, 시스템 등 환경적 요인들의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는 복잡한 기업 프로세스의 결과라고 하였다(Neck et al., 2004).

연구자들은 창업생태계의 개념과 함께 창업생태계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있다. Mujahid et al.(2019)은 시장(markets), 자본(finance),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지원(support), 정부 역할(government role), 인프라(infrastructure), 산업 네트워크(industrial network relationship), 멘토십(mentorship) 총 8가지로 창업생태계 구성요소를 설명하였다. Cohen(2006)은 공식/비공식 네트워크, 대학, 정책 수단, 세무 등의 전문서비스, 자본서비스, 문화적 요인 등을 창업생태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언급하였다. 또한 OECD는 규제, 시장 상황, 금융 접근성, 연구개발·기술, 기업가적 역량 및 문화, 세계경제포럼(WEF)은 개인적 요소(멘토링, 교육), 재정 지원 요소(은행, 투자자 등), 사업 지원 요소(인큐베이터, 비즈니스 협회), 환경지원 요소(규제, 인프라, 문화)를 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라고 설명하였다(서리빈 외, 2020).

우리나라도 창업생태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성훈(2020)은 부산지역의 창업생태계 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지표 설계를 통해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부산지역 창업생태계는 투자, 문화 등의 문제점과 전문투자자 유치, 투자자 배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창업문화적 인식개선 교육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창구·서영욱(2018)은 대전지역의 청년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 창업생태계의 환경을 조성하고 자금 지원 등의 개선 전략을 언급하였다. 김성훈·남정민(2016)은 (예비)창업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생태계의 현황과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창업환경, 창업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인식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면서 선제적으로 창업 인식 변화와 창업 문화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창업생태계에는 정부, 투자자, 창업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창업가와 스타트업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이 크며, 특히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업가적 활동을 지원하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구양미, 2022). 또한, 정부는 법과 규제를 조정하는 ‘feeder’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듯이, 생태계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창업가는 정부와 함께 생태계의 기회와 제한을 인식하는 최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Stam, 2015). 이에 창업생태

계의 주체인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국내 창업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창업생태계에 대한 중요도 및 성취도를 분석하고 국내 창업생태계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창업생태계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고,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생태계 구성요소 별로 중요도와 성취도 값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창업생태계를 발전하기 위해 강화하고 축소해야 하는 핵심 요소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창업생태계 개념

그리스어로 집(house)을 뜻하는 ‘oikos’를 어원으로 하는 eco와 집합/구성체를 뜻하는 system의 결합어인 생태계(ecosystem)는 생물학에서 사용되었다(Cavallo et al., 2019). Tansley(1993)는 살아있는 성분과 살아있지 않은 성분의 복합체가 모두 상호 작용하는 것을 생태계라 정의하였다. 생물학적 관점으로 생태계는 상호 작용하는 물리적 환경 요소와 유기체의 통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현창, 2018). 자연생태계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서로 간의 생성-성장-소멸 단계를 통해 선순환적인 메커니즘을 보여준다(곽혜진·이무원, 2018). 생태계 이론을 비즈니스 생태계에 처음 적용한 Moore(1993)는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본, 파트너, 공급자, 고객 등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상호 공존 및 진화하는 비즈니스 생태계 관점으로 볼 것을 강조하였다. 이후 경제학 분야에 확장되어 혁신생태계, 산업생태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김현창, 2018), 창업생태계(entrepreneurial ecosystem) 용어로 발전하였다. 창업생태계는 entrepreneurial과 ecosystem의 합성어로 학자들에 의해 공통으로 정의되지 않았지만(Stam & Van de Ven, 2018), 다양한 학자들이 창업생태계를 정의하고 있다.

Neck et al.(2004)는 특정한 지역 내에서 새로운 벤처를 육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구성체를 창업생태계라 정의하였다. Acs et al.(2014)는 창업생태계를 창업 활동을 바탕으로 자원 배분에 적극적인 개인이 내재한 기업가적 태도, 역량 등의 상호작용이라 정의하였다. Isenberg(2011)는 창업자는 필요한 자금, 인력, 전문가 등을 쉽게 구하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창업생태계라 정의하였고, Vogel(2013)은 지역 내의 창업 행위자와 창업환경이 공존하고 상호 작용하여 새로운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는 집합체를 창업생태계라 하였다(로영영·박재용, 2020). 이대기(2014)는 창업생태계를 창업자, 창업지원기관, 엔젤/벤처 등의 투자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창업 활동이 지속해서 활성화되는 환경이라 하였다. 경제발전은 복잡한 기업 프로세스의 결과로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진다. 이에 새로운 벤처/창업을 위해서 창업환경 속에서 구성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진화하기 때문에 창업생태

계는 중요하다(Spilling, 1996). 또한 체계적인 창업생태계가 구축된다면 예비창업자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지며 실패하더라도 재창업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창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Mason & Brown, 2014; 이우진 외 2020).

<표 1> 창업생태계 관련 선행연구 정의

연구자(년도)	정의
Van de Ven(1993)	벤처들은 사업체의 수, 인프라, 공공기관, 환경적인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집합체
Cohen(2006)	지속 가능한 벤처기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행위자들의 상호연결된 그룹
Isenberg(2011)	문화, 정책 및 리더십, 자금, 인적 자본, 벤처 친화적 상품시장, 제도 및 인프라 지원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생태계
Mason & Brown(2014)	지역의 기업가적 환경 속에서 연결, 중재, 성과관리를 위해서 상호 연결되는 행위자, 조직 기관, 프로세스의 집합
Stam(2015)	특정한 영역에서 생산적인 기업가정신을 위해 조직화한 상호의존적인 행위자와 요소 간의 결합
Spigel(2017)	지역의 혁신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초기 창업가를 지원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들의 결합

출처 : Cavallo et al.(2019)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의

2.2. 창업생태계 구성요소

창업생태계를 연구하는 관점에서 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구성요소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받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최남희, 2017). 국내 및 해외의 다양한 창업 관련 기관, 정부, 연구자들은 창업생태계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창업생태계 지표를 개발하고 모델을 지속해서 연구해왔다(Alvedalen & Boschma, 2017; 정행로·양동우, 2021). Van de Ven(1993)은 처음으로 창업생태계 요소를 ①법과 제도(institutional arrangement) ②과학지식, 자금 조달 메커니즘 등의 공공 자원(public resource endowments) ③민간 사업자가 연구개발, 제조, 마케팅 등을 통해 제공하려는 사업 활동(proprietary business activities) 총 3가지로 제안했다(Stam & Van de Ven, 2018). 이후에 Feld(2012)와 Isenberg(2011)는 Van de Ven(1993)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를 좀 더 정교하게 확장하였다(Stam & Van de Ven, 2018). Feld(2012)는 지역 기반 스타트업과의 협업, 강력한 네트워크, 기술, 서비스 자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자원, 정부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고, Isenberg(2010)는 창업생태계 요소를 ①정책(Policy) ②자금(Finance) ③문화(Culture) ④지원(Support) ⑤인적자본(Human Capital) ⑥시장(Markets) 총 6가지 구성요소를 공식화하였고, 특히 인적자본과 시장 요소는 Van de Ven(1993)의 구성요소를 반영하여 정교하게 체계화시켰다(Stam & Van de Ven, 2018). Isenberg(2011)는 창업생태계는 총 6개의 요소와 12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소 간

의 밀접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고, ①정책(Policy)의 하위요소는 정부(Government)와 리더십(Leadership) ②자금(Finance)의 하위요소는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 ③문화(Culture)의 하위요소는 기업가정신,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성공 스토리(Success Stories) 공유, 혁신성·창의성·실험, 부의 창출, 야망·추진력·형그리정신 등의 사회규범(Social norms) ④지원(Support)의 하위요소는 법률, 회계 등의 전문서비스(Support professions)와 물리적 하부구조(Infrastructure) ⑤인적(Human capital)자원의 하위요소는 기업가정신 교육 훈련 기관(Educational institutions), 창업 전문 인력(Labor) ⑥시장(Markets)의 하위요소는 얼리어답터 등의 초기 고객(Early customers), 창업가 및 다국적 기업과의 네트워크(Networks)로 창업생태계 협업체계를 구성하였다.

Spigel(2017)은 문화적(cultural)·사회적(social)·물리적(material) 상위요소와 ①상호 지원 문화(supportive culture) ②기업가적 역사(histories of entrepreneurship) ③유능한 인력(worker talent) ④투자자본(investment capital) ⑤네트워크(networks) ⑥멘토 및 롤모델(mentors and role models) ⑦정책 및 거버넌스(policy and governance) ⑧대학(universities) ⑨지원 서비스(supportive services) ⑩물리적 인프라(physical infrastructure) ⑪시장 기회(open markets) 총 11개 하위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지속되고 재생산되는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Stam(2015)과 Stam & Spigel(2018)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Stam & Van de Ven(2018)은 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설명하였다. ①제도(Institutions) 요인은 사회규범(formal institutions), 문화(culture), 네트워크(networks) ②자원(Resources) 요인은 물리적 인프라(physical infrastructure), 자본(finance), 리더십(leadership), 역량(talent), 지식(knowledge), 수요(demand), 사업 중개 서비스의 공급 및 접근성(intermediate services) 총 10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요소들은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발전하면서 생산적인 기업가정신(productive entrepreneurship)을 만들어내고 이는 다시 창업생태계 구성요소를 증진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창업생태계 구성요소는 국제적으로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리포트(GETR)는 국가 기반의 창업생태계 환경을 구성하는 법(Policy), 시장(Markets), 문화(Culture), 금융(Finance), 창업 인프라(Infrastructure) 등에 대해 글로벌 조사를 하고 있으며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EM)는 국가의 여건을 평가하고자 교육(Education), 정책(Policy), 자본(Finance), 물리적 하부구조(Infrastructure), 시장(Markets), 인적자본(Human Capital), 지원(Support), 문화(Culture), R&D/혁신(R&D/Innovation)으로 구성하여 매년 전문 조사를 하고 있다(정행로·양동우, 2021).

기존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창업생태계는 창업가, 기업가정신, 정부, 자본, 제도, 문화, 물리적 하부구조 등 내·외부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가 체계적으로 긴밀히 상호작용하면서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국내 창업생태계 선행연구

국내 창업생태계의 선행연구는 ①지역 및 국가 기반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②창업생태계 지표개발 및 측정/진단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5개년 계획’에서 삼성경제연구소가 벤처를 강조하면서 ‘벤처생태계’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문미성, 2019). 고정민·김정호(2000)는 자연생태계와 마찬가지로 벤처캐피탈도 먹이사슬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벤처기업(생산자), 벤처캐피탈(소비자), 회수시장(분해자), 법과 제도·입지 조건 등의 인프라(무기환경)는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내에서는 2010년 이후부터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전문기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의 창업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개선점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영환·김지은, 2022). 이대기(2014)는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을 인력, 시장, 자금, 인프라 4가지 측면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채지민·이원호(2017)는 성남시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생태계 구성요소 별 현황을 파악하고 성남시 기술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업종별 산업의 발전 정도와 기술개발 시점, 사업화 역량 차이를 문제점으로 제시하였고, 획일화된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창업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2021)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초기자금 부족, 모험자본 역할 미흡, 회수시장 경직을 창업생태계 문제점으로 제시하면서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체계적인 법 개선 및 자금 지원 확대, 민간 자본 투자 활성화, 창업 제도전 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창업생태계는 창업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와 구성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선민, 2019). 국내의 창업생태계 지표개발 및 진단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우진 외(2020)는 창업생태계 관련 문헌 연구, 전문가의 FGI 및 델파이 조사를 기반으로 정책, 재무적 환경, 문화, 시장, 인적자원, 자원, 지식의 총 7개 지표와 지표별 총 22개 하위요소, 세부 요인 총 38개를 제시하였다. 김선우 외(2021)는 창업·벤처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창업생태계의 주체를 기업, 정부, 투자 총 3개 영역, 25개 지표로 생태계 지수 모형을 개발하여 구성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밝혀냈다. 김영환·김지은(2020)은 논문, 보고서, 통계 등의 창업생태계 관련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혁신창업생태계를 기업가/창업, 기업, 자금, 지원조직, 기술/지식 인프라, 정책/규제, 교육, 문화/인식, 기업가적 다양성, 글로벌화 총 10개 지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수정·보완하여 국내의 혁신창업생태계 수준을 진단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의 기업, 자금, 지원조직 등의 분야별 정책 시사점과 방향을 제시하였다(김영환·김지은, 2022).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지역·국가 기반 창업생태계 현황 및 개선점 연구와 창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설

명하는 연구들은 존재하지만, 실제 창업가가 인식하는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의 약점을 분석하여 이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가 인식하고 있는 국내 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 별 중요도와 성취도를 파악하여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국내 창업생태계 관련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최남희(2017)	시스템 사고를 토대로 창업생태계의 성장단계별 성장과 한계 변수를 분석하여 해결방안 연구
곽혜진·이무원(2018)	한국과 중국의 창업생태계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창업생태계 발전 방향 질적 연구
김현창(2018)	창업생태계 주요 구성요소 도출 및 판교지역을 기반으로 창업생태계 정책 전략 연구
공혜원(2019)	해외선진국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김소연 외(2020)	정책, 문화, 시장 요소를 중심으로 싱가포르 창업생태계 현황 파악 및 한국의 창업생태계 요소 간의 시사점 질적 연구
안태욱 외(2020)	AHP를 활용하여 창업생태계 성공 요인 우선순위 도출을 통해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연구
이우진 외(2020)	창업생태계 측정모형과 지표개발 및 지역창업생태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지표 개발 연구
남정민 외(2021)	GETR데이터를 활용하여 2016년 및 2021년 창업자의 창업 환경 인식 변화 추세 연구
이민재·정진섭(2021)	충북지역의 기업, 정부 등을 대상으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관·학 전략 방안 연구
김태현(2022)	지방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대상으로 요인들의 상호 영향 관계 분석 연구

출처 : 연구자 정리

2.4. 국내 창업생태계 현황

우리나라는 1986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 및 공공주도의 창업지원정책 및 지원프로그램의 양적인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남정민·이환수(2017)는 정부 중심의 창업지원, 엔젤 투자 활성화 등의 창업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창업생태계가 양적으로 성장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연도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6개 중앙부처, 2017년 및 2018년 7개 중앙부처, 2019년 14개 중앙부처, 2020년 16개 중앙부처, 2021년에는 15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가 추가로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하였다. 2022년 정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94개 기관을 중심으로 378개의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화(172개), 시설·보육(96개), 행사·네트워크(37개), 멘토링(32개), 창업교육(30개), 기술개발(6개), 융자(5개) 순으로 21년도와 비교하면 융자 사업이 추가되었다(중소벤처기업부, 2022).

<표 3> 2022년도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

사업명	
사업화 (51건)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 육성, 데이터 활용 사업화, 스포츠산업 예비 초기 및 창업도약,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예비-초기-도약패키지 사업,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등
기술개발 (5건)	민관협력기반 ICT스타트업육성사업, ICT미래시장 최적화 협업기술개발사업,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시설-공간-보육(8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구축, 장애인창업보육시설 운영,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지원, 창업존 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창업교육 (12건)	대학 창업교육 체제 구축, 학생 창업유망팀 300,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 공간정보창업기업 투자유치전략 교육, 기업가정신기반 구축 및 확산, 실전창업교육, 청소년 비즈쿨 등
멘토링-컨설팅 (10건)	K-Global 창업멘토링,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농식품 벤처창업센터, 특허전략 컨설팅 지원,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컨설팅, 여성벤처창업케어프로그램,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IP 나래 프로그램, IP디딤돌프로그램 등
행사-네트워크 (11건)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환경창업대전,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대스타해결사 플랫폼, 도전K-스타트업, 스타트업 해외 전시회지원,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컴업2022,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산림창업 경진대회
융자 (3건)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2022)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표 4> 2022년도 광역·기초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사업명	
사업화 (121건)	디지털대장간, 창업기업 판로개척 지원, 창업촉진지구 지원사업, 대구 팀스프로그래 운영 및 기업성장지원, 디지털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사업, 사회적경제 문화예술청년 창업지원프로젝트, 청년창업 도전 프로젝트, 청년창업 강화 지원사업 등
기술개발 (1건)	글로벌 First R&D 지원
시설-공간-보육(88건)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서울창업센터 관악운영, 서울창업허브 성수운영/창동, 부산창업지원센터,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청년창업지원센터,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마포비즈니스센터, 양천창업허브, 꿈꾸는 청년대장간, 청년큐브,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등
창업교육 (18건)	서울창업카페, G-IN 스타트업 JUMP 사업, 창의 인재육성 특성화 사업,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청년글로벌셀러 육성 창업아카데미, 소자본 창업강좌, 온라인 쇼핑몰 창업과정, 청년 창업역량 강화 등
멘토링-컨설팅 (22건)	부스터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피지기 투자유치지원사업,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청년TIPS 인큐베이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대학 기술창업 활성화 사업, 예비(초기)창업지원 육성사업, 창업커뮤니티 조성사업, 부산진구 청년 창업캠프 등
행사-네트워크 (26건)	스타트업 리더스 포럼, 크라우드펀딩지원사업, 스파크 IR DAY, 유진탐사 프로그램, 청년창업 마당, 창업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송파청년CEO 포럼, 고양 창업페스티벌, 부천창업리그 운영, 스타트업 경진대회, 양주시 청년 창업 경진대회 등
융자 (2건)	청년창업특례보증,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2022)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약 30년 동안의 국내 창업생태계 환경을 외형과 내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외형적인 변화로 신설 법인 수는 2016년 96,155개, 2020년 123,305개로 증가하였고, 창업기업 수는 2019년 128.5만개에서 2020년 148.5만개로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창업생태계 내부 변화를 분석한 결과, 4차산업혁명 및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서비스플랫폼 등 기술기반 스타트업 비중이 증가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21b). 또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국내 벤처투자는 투자금액 4조 3045억원, 벤처투자 4,231건, 피투자기업 2,130개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대한상공회의소, 2021). 이는 바이오/의료, 정보통신기술(ICT), 비대면 투자 증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투자시장 활성화의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중소벤처기업부, 2021a), 2018년을 중심으로 벤처투자가 활발해지면서(김소연 외, 2020),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기업이 2020년 13개로 급증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21b).

이러한 국내 창업생태계의 긍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환경이 개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김소연 외, 2020). 창업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창업기업 5년차 생존율은 29.2%로 OECD 주요국 평균 58.3%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1). 엔젤투자 역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2020년 기준, 엔젤투자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등이 수도권에서 주로 활동하여 지역 간 불균형으로 질적 성장이 요구된다(산업연구원, 2021). 김영환(2021)은 낮은 기업생존율 및 스케일업 성과, 정부 주도의 투자생태계로 인한 민간 자본의 역할 미흡, 신기술·신사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 전략 부재, 창업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 한국의 창업생태계 문제점을 8가지로 제시하였다. 정리하자면, 국내 창업생태계는 정부 주도의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분야별 창업생태계의 질적 성장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5> 수도권 및 비수도권 간 엔젤투자 주체 비교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총계
엔젤투자자(명)	10,571	3,157	13,728
전문개인투자자(명)	156	27	183
엔젤클럽(개)	167	73	240
개인투자조합(개)	1,112	418	1,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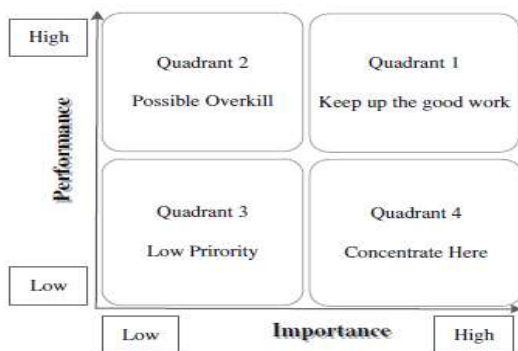
출처 : 산업연구원(2021)

III. 연구방법

3.1. IPA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방법을 활용하였다.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IPA 분석을 활용하는데 소비자가 느끼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도

를 측정할 수 있다(Martilla & James, 1977). IPA는 고객 또는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마케팅 전략에 적용하기 위한 분석 도구이다(Phadermrod et al., 2016). Silva & Fernandes(2010)는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심리학, 서비스 평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IPA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IPA 방법은 중요도 및 성취도 간의 관계를 동시에 측정하여 대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어떠한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분석하게 해준다. 중요도-성취도 분석은 x축은 중요도, y축은 성취도를 나타내며 IPA 매트릭스는 4가지 영역에 각 속성을 표시하였다(Hosseini & Ziaei Bideh, 2013). 중요도-성취도 값이 교차함으로써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중앙값과 평균값이 비슷하면 평균값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Martilla & James, 1977). IPA 매트릭스의 4가지 영역은 제1사분면은 지속유지, 제2사분면은 과잉 노력 지양, 제3사분면은 낮은 우선순위, 제4사분면은 노력집중 영역으로 구분된다(Hosseini & Ziaei Bideh, 2013). 제1사분면은 중요도와 성취도 값이 모두 높게 나타나므로 이 영역에 나타난 요소들은 강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제2사분면은 낮은 중요도와 높은 성취도 값을 보여주므로 이 영역에 포함된 요인들은 집중적으로 계속 다루기보다는 다른 영역에 노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제3사분면은 낮은 중요도, 낮은 성취도 값이 나타나므로 이 영역에 나타난 요소들은 추가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 제4사분면 영역에 포함된 요소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성취도가 낮으므로 공급자들은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Hosseini & Ziaei Bideh, 2013). 본 연구에서는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의 중요도와 성취도 값을 동시에 분석하여 정책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국내 창업생태계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림 1> IPA 중요도-성취도 분석 매트릭스 (Hosseini & Ziaei Bideh, 2013)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2년 3월 16일부터 4월 13일까지 29일간 창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218명이 설문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표본 특성은 <표 6>과 같다. 남성 141명(64.7%), 여성 77명(35.3%)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24명(11.0%), 30대 60명(27.5%), 40대 89명(40.8%), 50대 38명(17.4%), 60대 7명(3.2%)으로 나타났다. 창업상태는 현재 창업 중인 창업자가 163명(74.8%), 현재 창업 중이지 않지만 3년 이내 창업한 경험이 있는 기창업자는 55명(25.2%)이다.

<표 6> 표본의 특성

변수	집단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41	64.7
	여성	77	35.3
연령	20대	24	11.0
	30대	60	27.5
	40대	89	40.8
	50대	38	17.4
	60대	7	3.2
지역	수도권	165	75.7
	충청도	39	17.9
	경상도	12	5.5
	강원도	2	0.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4	1.8
	대학생	88	40.4
	석사	53	24.3
	박사	73	33.5
창업상태	현재 창업 중	163	74.8
	기창업자	55	25.2
창업기간	1년 미만	35	16.0
	3년 미만	82	37.6
	5년 미만	57	26.1
	5년 이상	42	19.3
	10년 이상	2	1.0

3.3. 측정도구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및 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Isenberg(2011)와 2016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리포트(GETR) 문항을 참고하였다. 설문은 총 42문항으로 창업생태계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한 18문항, 성취도 18문항, 인구통계학적 기초정보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 ‘정책’, ‘문화’, ‘지원’, ‘시장’, ‘인재’, ‘금융’ 6가지 요소이며, 정책(회사설립의 용이성, 세금, 정부규제, 창업 실패 시 사회안전망, 창업지원 프로그램, 해외시장 진출 프로그램), 문화(창업 후 생존 용이성, 실패수용문화, 출구용이성), 지원(기술이전, 창업지원담당자, 창업지원기관지원), 시장(시장진입용이성, 시제품제작), 인재(대학창업교육, 평

생창업교육), 금융(엔젤벤처투자, 창업자금 조달)의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질문은 “창업지원 정책 회사설립의 용이성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창업지원 정책 회사설립의 용이성의 성취도는 얼마인가?”로 창업생태계 구성요소를 각각 조사하였다.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1점은 매우 낮은 편, 5점은 매우 높은 편으로 설정하였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3.0을 사용하여 창업자가 인식하는 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 별 전체 중요도와 성취도 값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증 및 매트릭스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7> 측정 도구

구분	내용	문항 수	출처	
창업생태계 중요도 및 성취도 문항	정책	회사 설립의 용이성	2	Isenberg(2011)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2016)
		세금	2	
		정부규제	2	
		창업실패시 사회안전망	2	
		창업지원 프로그램	2	
		해외시장 진출 프로그램	2	
	문화	창업후 생존 용이성	2	
		실패수용문화	2	
		출구용이성	2	
	지원	기술이전	2	
		창업지원담당자	2	
		창업지원기관지원	2	
	시장	시장진입용이성	2	
		시제품제작	2	
	인재	대학창업교육	2	
		평생창업교육	2	
	금융	엔젤벤처투자	2	
		창업자금 조달	2	
인구기초정보	성별, 나이, 지역 등	6	-	

IV. 연구결과

4.1. 창업생태계 구성요소 IPA 검증

국내 창업자가 인식하는 창업생태계의 요인별 중요도 및 성취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서 창업자가 인식하는 국내 창업생태계의 요인별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요도 평균은 4.10으로 ‘창업지원프로그램’(4.43), ‘창업자금조달’(4.39), ‘시장진입용이성’(4.30), ‘창업 후 생존의 용이성’(4.2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창업자에게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자금 조달, 시장진입 용이성 등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창업자가 인식하는 국내 창업생태계의 요인별 성취도를 파악하였다. 성취도 평균은 3.39로 ‘창업지원프로그램’(3.81), ‘회사설립의 용이성’(3.76), ‘창업지원기관지원’(3.66),

‘창업자금조달’(3.66), ‘창업지원담당자’(3.52) 순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중요도와 실행도 값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8>과 같이 모든 요인은 중요도가 성취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창업자들이 창업생태계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모든 구성 요인을 중요도와 비교하면 성취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표 8>에서 순위가 높은 요소일수록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요도와 성취도 차이가 가장 순서는 ‘창업실패시 사회 안전망’($t=10.715, p<.001$), ‘실패수용문화’($t=9.559, p<.001$), ‘시장진입용이성’($t=11.109, p<.001$), ‘창업 후 생존의 용이성’($t=11.073, p<.001$), ‘출구용이성’($t=10.908, p<.001$)순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8>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에 대한 IPA 검증

구분	중요도	성취도	중요도-성취도 차이	t	순위
회사설립의 용이성	3.99(14)	3.76(2)	.225	3.267	18
세금	4.07(11)	3.53(5)	.537	7.380	16
정부규제	3.89(15)	3.30(12)	.592	7.056	12
창업실패시 사회안전망	4.20(8)	3.20(13)	1.000	10.715	1
창업지원프로그램	4.43(1)	3.81(1)	.624	9.972	9
해외진출프로그램	4.02(13)	3.49(7)	.532	7.287	17
창업후 생존의 용이성	4.28(4)	3.32(11)	.959	11.073	4
실패수용문화	4.09(10)	3.10(18)	.995	9.559	2
출구용이성	4.12(9)	3.17(15)	.950	10.908	5
기술이전	3.74(17)	3.16(16)	.583	7.377	13
창업지원담당자	4.06(12)	3.52(6)	.541	7.244	15
창업지원기관지원	4.27(5)	3.66(3)	.610	9.630	10
시장진입용이성	4.30(3)	3.33(10)	.963	11.109	3
시제품제작	4.27(5)	3.37(8)	.899	11.950	7
대학창업교육	3.77(16)	3.20(13)	.569	7.078	14
평생창업교육	3.72(18)	3.13(17)	.596	7.337	11
엔젤벤처투자	4.26(7)	3.35(9)	.908	10.742	6
창업자금조달	4.39(2)	3.66(3)	.725	9.60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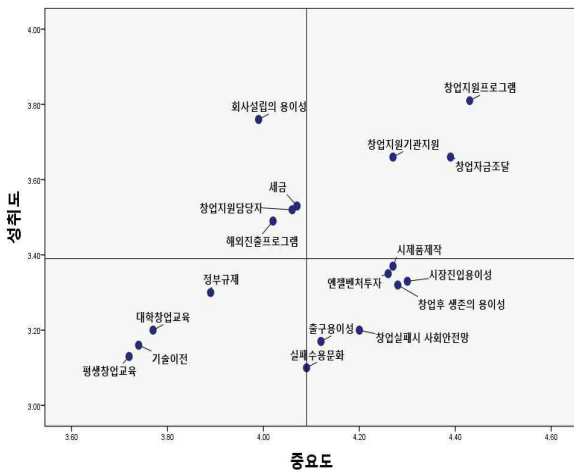
* 순위: 중요도와 성취도 간 차이의 크기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함

4.2. 창업생태계 구성요소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창업생태계 구성 요인의 중요도와 성취도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아 4사분면으로 구분하여 IPA 매트릭스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2>는 창업자가 인식하는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에 대한 IPA 매트릭스 분석 그래프이다. IPA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요도 및 성취도 모두 높은 제 1사분면에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기관지원’, ‘창업자금 조달’ 요소가 있다. 제 2사분면은 중요도는 낮지만 성취도가 높은 속성

으로 ‘회사설립의 용이성’, ‘창업지원담당자’, ‘세금’, ‘해외진출 프로그램’ 요소가 있다. 해당 요소들은 자원이거나 노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 3사분면은 중요도 및 성취도 값이 낮은 요소로 ‘정부규제’, ‘대학창업교육’, ‘기술이전’, ‘평생창업교육’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창업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성취도가 낮은 요소로는 ‘창업실패시 사회안전망’, ‘실패수용문화’, ‘시장진입 용이성’, ‘창업 후 생존의 용이성’, ‘출구용이성’ 요소로 나타났다. 제 4사분면에 속해 있는 요소들은 창업생태계 발전을 위하여 현재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IPA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n=218)

V. 결론 및 논의

5.1. 연구결과

본 연구는 창업자가 인식하는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분석하고 창업생태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자들의 중요도 순위는 ①창업지원 프로그램(4.43) ②창업자금조달(4.39) ③시장진입용이성(4.30) ④창업 후 생존의 용이성(4.28) ⑤시제품제작(4.27), 창업지원기관지원(4.27) ⑥엔젤벤처투자(4.26) ⑦창업 실패 시 사회안전망(4.20) 등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중요도가 낮은 요소는 ‘평생창업교육’(3.72)으로 나타났다.

성취도 순위를 살펴보면 ①창업지원프로그램(3.81) ②회사설립의 용이성(3.76) ③창업지원기관지원(3.66), 창업자금 조달(3.66) ④세금(3.53) ⑤창업지원담당자(3.52) ⑦해외진출프로그램(3.49) ⑧시제품제작(3.37) 등 순으로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고, ‘실패수용문화’(3.10) 요소는 가장 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

국내 창업생태계의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를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창업지원프로그램’, ‘창업지원기관지원’, ‘창업자금조달’ 요소는 중요도 및 성취도는 모두 높게 나타나 이를 지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중요도는 높지만 성취도가 낮은 요소는 ‘창업 실패 시 사회안전망’, ‘실패수용문화’, ‘시장진입 용이성’, ‘창업 후 생존의 용이성’, ‘출구용이성’ 등의 순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5.2.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창업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자가 인식하는 ‘창업 실패 시 사회안전망’의 중요도와 성취도 값 차이는 1.00점으로 가장 먼저 개선이 필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패를 성공을 위한 길로 보고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에게 지원금을 20%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홍익희, 2021). 창업의 실패가 개인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창업보조금, 사회 보장 보험 등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실패한 창업가의 인재Pool을 확보하고 성공한 창업가와 매칭하여 이들의 부족한 역량을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의 창업생태계 발전을 위하여 창업 실패를 수용하는 문화 조성 및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창업지원 정책 및 투자시장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인식 수준은 매우 낮아(김영환, 2021), 창업 실패 시 이를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남정민·이환수, 2017). 창업생태계 중 미국의 실리콘 벨리는 세계 여러 정부와 대학 등의 벤치마킹 사례이다. 실리콘 벨리의 성공 요인 중의 하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로운 창업문화이다(신재식·김수정, 2019). 실패를 사업의 경험이자 자산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자유롭게 재창업을 가능케 한다(김선우·오유리, 2022).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서상 보수적이고 실패에 관해 엄격한 분위기이다(오윤희, 2016).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레 창업가는 창업 실패 후 재창업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자신감 하락 등을 경험하게 된다(Fang He et al., 2018). 하지만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다. 창업의 방해물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상은 어렵고, 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 간의 선순환 구조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창업 실패 및 재도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구축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성공한 창업가의 스토리를 많이 공유한다. 성공한 창업가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실패 또는 재창업한

창업가의 창업 실패 경험으로부터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적절하게 공유하고 창업 실패 시 이를 수용하는 문화·인식 개선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창업정신 강화, 제도전 문화 조성을 정부의 창업지원 1순위 분야로 선정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김영환, 2021). 우리나라 또한 이에 버금가는 지원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넷째, 창업자가 인식하는 ‘시장진입 용이성’의 중요도와 성취도 차이는 0.96점으로 해결방안이 필요한 요소이다. 정부는 창업을 이끌고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보고 매출과 고용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는 혁신분야 중심의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남정민 외, 2021).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및 디지털 전환으로 인하여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비대면 서비스업 등 신사업 분야 스타트업 수는 20년 약 23만개다(중소벤처기업부, 2021a). 주요 선진국들은 신사업 분야에 대한 스타트업 친화적 규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선진국은 네거티브 규제정책을 기반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전규제 정책으로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규제 패러다임을 재편하기 위하여 기존 산업과 신산업분야 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가 눈앞의 이익을 좇기보다는 상대를 더 이해하고 신사업 분야의 스타트업 시장진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상생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의 창업생태계 발전을 위하여 창업 후 생존이 용이하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 벤처투자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창업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생존하고 있는 기업 유지율은 56.3%이며, 창업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창업 유지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1). 이는 자금 지원 및 투자유치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금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자금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요소이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어느 정도 회사 규모가 되기까지 대표자 스스로가 자금을 관리해야 되므로 기본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이해와 관리역량이 필요하다. 성장단계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재무, 회계, 세무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해외 주요국은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 정책지원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4년부터 *Scaleup initiative*의 정책으로 스케일업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교육 및 정보 공유,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은 스케일업 기업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에 맞는 차등 지원을 하고 있다(KDB미래전략연구소, 2020).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초기창업에 대한 지원금이 집중되어 있는데, 정부의 초기자원 지원 정책만으로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정부 이외에도 지자체, 대학·연구소 등 다양한 민간기관으로부터의 초기 사업 자금 지원과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요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지 못하고 자금 등의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이재석 외, 2021). 이에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초기 스타트업에 집중된 지원을 단계별 스케일업 지원으로 확대하고, 스타트업의 성장과 스케일업 프로그램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여섯째, 창업-투자-성장-출구-재창업/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적 구조를 위하여 출구용이성에 대한 전략이 요구된다. 김영환·김지은(2022)은 국내의 창업기업이 IPO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10년이 걸리며, M&A시장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기업 수가 적고, 대기업의 CVC 활동이 부진하여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한계점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획일화된 투자지원에서 벗어나 엔젤, 액셀러레이터, VC에게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다양한 투자방식을 허용하고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M&A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회수 방법 등과 투자 문화를 개선하고 다양한 방식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공혜원, 2019).

일곱째, 본 연구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은 문화영역의 하위 요소인 ‘창업 후 생존의 용이성’, ‘실패수용문화’, ‘출구용이성’ 요소는 시급한 노력이 필요하다. 창업생태계 발전을 위하여 이를 하나의 개별요소로 바라보지 않고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구성요소들은 복합적·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의 창업지원으로 중앙정부·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창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차별성이 부족하고 창업생태계의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김영환, 2021). 창업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지원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창업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내 창업생태계 환경 및 수준은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성장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창업생태계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구성요소를 재점검하여 상생하는 긍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5.3.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Isenberg(2011)과 2016년도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보고서(GETR) 문항을 활용하여 문항 구성의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깊게 창업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국내에 실정에 맞는 항목으로 구성하여 요소별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전국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서울 및 경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

어 한국 스타트업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좀 더 다양한 지역적 표본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성장단계별, 업종별, 분야별로 창업생태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어진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 및 현재 창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3년 이내 창업한 경험이 있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세부적으로 현재 창업하고 있는 창업가와 창업을 경험한 창업가로 분류하여 연구할 필요성 있다.

REFERENCE

고정민·김정호(2000). *벤처생태계의 형성과 진화: CEO Information 240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김선우·오유리(2022). *한국 창업생태계 진단과 지원방향*.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혜진·이무원(2018). 한국과 중국 청두의 창업생태계 비교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3(5), 131-154.
 공혜원(2019). 글로벌 국가 비교를 통한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진단: 정량 및 정성 연구. *벤처창업연구*, 14(1), 101-116.
 구양미(2022). *Entrepreneurship Ecosystems(기업가적 생태계) 개념과 시사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5(1), 1-22.
 김선민(2019). 창업생태계의 이해관계자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9(3), 757-767.
 김선우·진우석·곽기현·고희진(2021). 창업·벤처 생태계 측정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6(6), 31-42.
 김성훈·남정민(2016).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현황 및 인식 연구: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을 중심으로 현황 및 인식 비교분석. *벤처창업연구*, 11(6), 175-183.
 김소연·조민경·이무원(2020). 싱가포르 창업생태계 연구: Isenberg(2010) 프레임워크의 지역적 변용을 통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2), 47-65.
 김영환(2021). 해외 주요국 창업생태계 벤치마킹을 통한 한국의 창업생태계 발전방안.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서울: 한국경영학회.
 김영환·김지은(2020).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1권) 한국의 혁신창업생태계 성과 진단 및 대시보드 개발*.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영환·김지은(2022). *2021 한국의 혁신창업생태계 대시보드*.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태현(2022). 지방 창업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탐색적 연구: 시스템 사고에 의한 접근.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23(1), 105-133.
 김현창(2018). 제1판교테크노밸리 창업생태계 사례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3(4), 166-194.
 남정민·이성호·이소정·유현경(2021). 국내 창업환경 및 창업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2016년과 2021년 변화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6(6), 145-155.
 남정민·이환수(2017). 주요 국가의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 및 효과 연구: 2016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의 비교. *벤처창업연구*, 12(6), 111-122.
 대한상공회의소(2021).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연구*. Retrieved (2022.07.02) from [\[EQ_NO_C010=20120933572&CHAM_CD=B001\]\(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S\).
 로영영·박재용\(2020\). 중국 창업생태계 현황 및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실무학회지*, 6\(1\), 31-48.
 문미성\(2019\). 창업생태계의 개념과 공간적 함의. *국토*, 456, 6-10.
 산업연구원\(2021\). *엔젤투자,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성장으로*. Retrieved \(2022.07.02.\) from \[file:///C:/Users/user/Downloads/2021+%EC%82%B0%EC%97%85%EA%B2%BD%EC%A0%9C+8%EC%9B%94_%EC%A0%95%EC%B1%85%EA%B3%BC%EC%9D%B4%EC%8A%882.pdf\]\(file:///C:/Users/user/Downloads/2021+%EC%82%B0%EC%97%85%EA%B2%BD%EC%A0%9C+8%EC%9B%94_%EC%A0%95%EC%B1%85%EA%B3%BC%EC%9D%B4%EC%8A%882.pdf\).
 서리빈·최정철·변영조\(2020\). 「중소기업연구」 40년 동안의 창업생태계 연구 동향 고찰 및 측정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42\(4\), 69-102.
 신재식·김수정\(2019\). *ICT 혁신창업 완성을 위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성공요인 분석*. 세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안태욱·강태원·이미경\(2020\).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창업생태계 성공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유통경영학회지*, 23\(2\), 91-105.
 이대기\(2014\). 금주의 논단: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과 개선점. *주간금융브리프*, 23\(23\), 2-9.
 이민재·정진섭\(2021\). 충북지역의 창업생태계 활성화 전략: 삼중나선모형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35\(3\), 81-115.
 이우진·오해미·김도현·김중성·김가영\(2020\). 창업생태계 측정모형과 지표개발: 델파이분석을 통한 지역창업생태계 측정지표 개발. *벤처창업연구*, 15\(4\), 1-15.
 이재석·이기호·이상명\(2021\).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국내의 유니콘 기업의 사례 비교. *중소기업연구*, 43\(1\), 165-186.
 이창구·서영옥\(2018\). 지역 창업생태계 분석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지역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3\(6\), 182-207.
 오은희\(2016.08.24.\). *3M·구글의 공통점... '실패 파티' 열고 '실패왕 선발'*. 조선비즈, Retrieved from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4/2016082400617.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4/2016082400617.html\).
 전성훈\(2020\).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분석 모델을 이용한 부산지역 기술창업생태계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정행로·양동우\(2021\). 직장인의 창업생태계 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34\(7\), 1149-1181.
 조만석·김선우\(2017\). *미국 창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기업벤처기업부\(2021a\).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 Retrieved\(2022.07.02.\) from \[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7&bcIdx=1028289\]\(https://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7&bcIdx=1028289\).
 중소기업벤처기업부\(2021b\).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분석*. Retrieved\(2022.07.02.\) from <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26105&bcIdx=86&strFileNm=f8c3fc07-7544-4c9d-b3da-cdf2e8d198f6.pdf>.
 중소기업벤처기업부\(2022\).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Retrieved \(2022.07.02.\) from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31000>.
 중소기업벤처기업연구원\(2021\). *국내외 재창업 지원 정책 비교 및 시사점*. Retrieved\(2022.07.02.\) from <https://www.kosi.re.kr/kosbiWar/front/functionDisplay?menuFrontNo=3&menuFrontURL=front/focusDetail?dataSequence=J211229K01>.
 채지민·이원호\(2017\). 기술창업생태계분석 및 구축방안: 성남시 사례연구. *국토지리학회지*, 51\(1\), 81-92.
 최남희\(2017\). 창업생태계의 성장과 한계에 대한 피드백 구조분석.](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S</p>
</div>
<div data-bbox=)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18(4), 117-145.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6). 2016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리포트 http://www.koef.or.kr/board/data_view.php?ARTICLE_SEQ=2943&BOARD_ID=6.
- 홍익희(2021). 이스라엘 창업지원 조선일보, Retrieved (2022.07.02.) from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1/11/30/AQF4NUNJSBADXN22M4ITLG2UPQ/.
- KDB미래전략연구소(2020).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촉진방안 Retrieved (2022.07.02.) from <https://signaln.seaily.com/ReportView/3062>.
- Acs, Z. J., Autio, E., & Szerb, L.(2014). National Systems of Entrepreneurship: Measurement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Reserach Policy*, 43(3), 476-494.
- Ahn, T. U., Kang, T. W., & Lee, M. K.(2020). A Study on Success Factors of Startup Ecosystem for Resolving Regional Imbalance. *Journal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Research*, 23(2), 91-105.
- Alvedalen, J., & Boschma, R.(2017). A critical review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research: Towards a future research agenda. *European Planning Studies*, 25(6), 887-903.
- Audretsch, D. B., & Belitski, M.(2017). Entrepreneurial ecosystems in cities: Establishing the framework conditions.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42(5), 1030-1051.
- Cavallo, A., Ghezzi, A., & Balocco, R.(2019). Entrepreneurial ecosystem research: Present debates and future directions.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5(4), 1291-1321.
- Chae, J. M., & Lee, W. H.(2017). An Analysis and Promotion of Technology-based Start-up Ecosystem: A case Study of Seongnam-Si. *The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graphers*, 51(1), 81-92.
- Cho, M. S., & Kim, S. W.(2017). *Trends and Implications of Start-up Policy in the U.S*. Sejo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Choi, N. H.(2017). An analysis on the Feedback Structures of the Limitation and Growth of Korean Entrepreneurial Ecosystems.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18(4), 117-145.
- Cohen, B.(2006). Sustainable valley entrepreneurial ecosystems.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15(1), 1-14.
- Fang He, V., Sirén, C., Singh, S., Solomon, G., & von Krogh, G.(2018). Keep calm and carry on: Emotion regulation in entrepreneurs' learning from fail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42(4), 605-630.
- Feld, B.(2012). *Startup Communities: Building an Entrepreneurial Ecosystem in Your City*. New York: Wiley.
- Hong, I. H.(2021). *Support for startup in Israel*. Chosunilbo, Retrieved(2022.07.02.) from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1/11/30/AQF4NUNJSBADXN22M4ITLG2UPQ/.
- Hosseini, S. Y., & Ziaei Bideh, A.(2013). A data mining approach for segmentation-base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SOM-BPNN-IPA): A new framework for developing customer retention strategies. *Service Business*, 8(2), 295-312.
- Isenberg, D.(2010). How to start an entrepreneurial revolution. *Harvard Business Review*, 88(6), 40-50.
- Isenberg, D.(2011). The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rategy as a new paradigm for economic policy: Principles for cultivating entrepreneurship. *Presentation at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European Affairs*, 1(781), 1-13.
- Isenberg, D.(2014). What an entrepreneurship ecosystem actually is. *Harvard Business Review*, 5(1), 1-7.
- Jeon, S. H.(2020). *A Study of Characteristics of Busan Region's Technology Business Ecosystem Using an Analysis Model for the Invigoration of Regional Business Ecosystem*.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Jung, H. R., & Yang, D. W.(2021).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Office Workers' Perception of Entrepreneurial Ecosystem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34(7), 1149-1181.
- KCCI(2021). *A Study on Policy Proposal for the Creation of a Dynamic Startup Ecosystem*. Retrieved(2022.07.02.) from 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K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33572&CHAM_CD=B001.
- KDBFuture Strategy Research Institute(2020). *A study on the promotion plan of scale-up for the development of unicorns*. Retrieved (2022.07.02.) from <https://signaln.seaily.com/ReportView/3062>.
- Kim, H. C.(2018). The Case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Ecosystem in Pangyo Techno-Valley with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3(4), 166-194.
- Kim, S. H., & Nam, J. M.(2016). Republic of Korea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atus and Recognition Research: Focusing on Entrepreneurs, Entrepreneurs Preliminary, Student Centere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tus and Recogni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6), 175-183.
- Kim, S. M.(2019). A stakeholder Analysis in Entrepreneurial Ecosystem.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3), 757-767.
- Kim, S. W., & Oh, Y. R.(2022). *Unpacking and Supporting Entrepreneurship Ecosystem in Korea*. Sejo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Kim, S. W., Jin, W. S., Kwak, K. H., & Ko, H. J.(2021).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Startup and Venture Ecosystem Index.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6(6), 31-42.
- Kim, S. Y., Cho, M. K., & Rhee, M. W.(2020). A study on Singapore Startup Ecosystem using Regional Transformation of Isenberg(2010).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2), 47-65.
- Kim, T. H.(2022). An Exploratory Study for the Growth of t

- he Local Start-up Ecosystems: Systems Thinking Approach.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23(1), 105-133.
- Kim, Y. H.(2021). *Development of Korea's Start-up Ecosystem through Benchmarking of Foreign Countries*. Seoul: Korea Business Review.
- Kim, Y. H., & Kim, J. E.(2020). *Development of the Korean Innovative Start-up Ecosystem Dashboard*. Sejo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Kim, Y. H., & Kim, J. E.(2022). *2021 Korean Start-up Ecosystem Dashboard*. Sejo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Koh, J. M., & Kim, J. H.(2000). *Formation and Evolution of the Venture Ecosystem*. *CEO Information*, 240. Seoul: Samsung Global Research.
- Kong, H. W.(2019). Korean Start-up Ecosystem Based on Comparison of Global Countrie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1), 101-116.
-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2016). *2016 Global Entrepreneurship Trend Report*. http://www.koef.or.kr/board/data_view.php?ARTICLE_SEQ=2943&BOARD_ID=6.
-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2021). *Angel investment goes beyond quantitative growth to qualitative growth*. Retrieved (2022.07.02.) from file:///C:/Users/user/Downloads/2021+%EC%82%B0%EC%97%85%EA%B2%BD%EC%A0%9C+8%EC%9B%94_%EC%A0%95%EC%B1%85%EA%B3%BC%EC%9D%B4%EC%8A%882.pdf.
- KOSI(2021). Comparison and Implica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Re-Startup Support Policies. Retrieved (2022.07.02.) from <https://www.kosi.re.kr/kosbiWar/front/functionDisplay?menuFrontNo=3&menuFrontURL=front/focusDetail?dataSequence=J211229K01>.
- Koo, Y. M.(2022). Entrepreneurial Ecosystems: Key Concepts and Economic Geographical Implications.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25(1), 1-22.
- Kwak, H. J., & Rhee, M. W.(2018). Comparative Study of a Startup Ecosystem in Seoul, Korea and Chengdu, Chin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5), 131-154.
- Lee, C. G., & Seo, Y. W.(2018). Study on the Revitalization Plans of Entrepreneurship in Young Adults through the Analysis of Local Entrepreneurial Ecosystem: Focusing on Entrepreneurship Program Participants in Daejeon Area.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3(6), 182-207.
- Lee, D. G.(2014). Discussion of the Week: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s of Korea's Startup Ecosystem. *Weekly Financial Brief*, 23(23), 2-9.
- Lee, J. S., Lee, K. H., & Lee, S. M.(2021). A Study on the Supporting System for Growth Stage of Startup. *Asia-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43(1), 165-186.
- Lee, M. J., & Jung, J. S.(2021). Strategies for Revitalize the Startup Ecosystem in the Chungcheongbuk-do: Focused on the Triple Helix Model.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35(3), 81-115.
- Lee, W. J., Oh, H. M., Kim, D. H., Kim, J. S., & Kim, G. Y.(2020). Developing Measurement Model and Indicators for Entrepreneurial Ecosystem: Focusing on Regional E-Ecosystem Indicator via Delphi Analysi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4), 1-15.
- Lu, Y. Y., & Park, J. Y.(2020).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Perception of China's Startup Ecosystem. *KOREAN MANAGEMENT PRACTICE ASSOCIATION*, 6(1), 31-48.
- Mack, E., & Mayer, H.(2016). The evolutionary dynamics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Urban Studies*, 53(10), 2118-2133.
- Mason, C., & Brown, R.(2014).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growth oriented entrepreneurship. Final Report to OECD*,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 Martilla, J. A., & James, J. C.(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he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21a). *SME Startup Support Plan(2021~2023)*. Retrieved(2022.07.02.) from [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7&bcIdx=1028289](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7&bcIdx=1028289).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21b). *Analysis of Changes in Korea Entrepreneurship Ecosystems*. Retrieved (2022.07.02.) from <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26105&cbIdx=86&stFileNm=f8c3fc07-7544-4c9d-b3da-cdf2e8d198f6.pdf>.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22). *Startup Support Project joint announcement*. Retrieved(2022.07.02.) from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31000>.
- Moon, M. S.(2019). Concepts and Spatial Implications of Startup Ecosystem. *Planning and Policy*, 456, 6-10.
- Moore, J. F.(1993). Predators and prey: a new ecology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1(3), 75-86.
- Mujahid, S., Mubarik, S., & Naghavi, N.(2019). Prioritizing dimensions of entrepreneurial ecosystem: a proposed framework. *Journal of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9(1), 1-21.
- Nam, J. M., & Lee, H. S.(2017).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Major Countries: Comparison of the 2016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6), 111-122.
- Nam, J. M., Lee, S. H., Lee, S. J., & You, H. K.(2021).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Domestic Start-up Environment and Start-up perception: Focusing on the changes in 2016 and 2021.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6(6), 145-155.
- Neck, H. M., Meyer, G. D., Cohen, B., & Corbett, A. C.(2004). An entrepreneurial system view of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2(2), 190-208.
- Oh, Y. H.(2016.08.24.). *3M and Google have in common... Open "Failure Party" and select "Failure King"*.

- Chosun Biz, Retrieved from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4/2016082400617.html.
- Phadermrod, B., Crowder, R. M., & Wills, G. B.(2016).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based SWO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4, 194-203.
- Seo, R. B., Choi, K. C., & Byun, Y. J.(2020). Exploring A Research Trend on Entrepreneurial Ecosystem in the 40 Years of the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for the Development of Ecosystem Measurement Framework.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42(4), 69-102.
- Shin, J. S., & Kim, S. J.(2019). *Analysis of the success factors of the global start-up ecosystem for the completion of ICT innovation start-ups*. Sejong: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 Silva, F., & Fernandes, P.(2010). *Us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n evaluating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A case stud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and Management Technology*. Cairo: ICEMT.
- Spigel, B.(2017). The relational organization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41(1), 49-72.
- Spilling, O. R.(1996). The entrepreneurial system: On entrepreneurship in the context of a mega-event.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36(1), 91-103.
- Stam, E.(2015).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regional policy: a sympathetic critique. *European Planning Studies*, 23(9), 1759-1769.
- Stam, E., & Spigel, B.(2018). *Entrepreneurial ecosystems*. In R. Blackburn, D. De Clercq, & J. Heinonen (Eds.). *The SAGE handbook of smal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London: SAGE.
- Stam, E., & Van de Ven, A.(2018). Entrepreneurial ecosystems: a systems perspective. *USE Working Paper series*, 18(06).
- Tansley, A. G.(1993). *An introduction to plant ecology*. Discovery Publishing House.
- Van de Ven, A. H.(1993). The development of an infrastructure for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3), 211-230.
- Vogel, P.(2013). *The Employment Outlook for Youth: Building Entrepreneurship Ecosystems as a Way Forward*.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G20 Youth Forum, Saint Petersburg: G20 Association.

Improvement Plans of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Us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Su-Jin, Kim*
Kyongran Seo**
Jung-Min Nam***

Abstract

Recently, various studies on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have been conducted.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is composed of various elements such as entrepreneurs, governments, and infrastructure, and these factors interact to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ifferences in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for startups using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method. Based on this, the importance and current level of the components of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were identified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importance ranking was in the order of startup support program(4.43), startup funding (4.39), market accessibility(4.30). The ranking of performance was startup support program(3.81), ease of starting a business(3.76), support for startup support institutions(3.66), and startup funding(3.66). All elements of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showed higher importance than performance. This means that the components of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in Korea are recognized as important, but do not play a significant role in terms of performance for startups. In addition, the factors with the highest improvement in the importance-performance matrix were 「safety nets for startup failure」, 「culture of acceptance of failure」, 「ease of market entry」, 「ease of startup survival」, and 「ease of exit」.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a social safety net, improving awareness of startup failure culture, matching successful startups, strengthening scale-up support by growth stage, easing regulations in new business fields, and diversifying investment recovery strategies.

KeyWords: entrepreneurial ecosystem, entrepreneurial ecosystem elements,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 First Author, 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Global Entrepreneurship, Dankook University, tnwls142@dankook.ac.kr

** Co-Author, Director of Research, INDUSTRIAL BANK OF KOREA, skrboom@ibk.co.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Global Entrepreneurship, Dankook University, namjm@dankook.ac.kr